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흥보국 제 1805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 일어나시오

안철문 신부  
(나운동 성당 주임)

나는 사람들에게 내 본명(本名)을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나운동 본당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 하

나가 편지를 주었는데, 거기에 “저는요, 신부님 세례명이 ‘일어나시오’ 인지 알았어요.” 라고 써어 있었다. 이 꼬마아이에게는 ‘이냐시오’ 라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성인의 이름이 “일어나시오”라는 말로 들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일어나시오”라는 이 한마디는 그저 아이가 보내준 편지에 적어놓은 잘못 표기된 이름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분의 말씀이었다. 이 아이를 통하여 들려주신 당신을 향하여 항상 새롭게 일어나라는 그분의 사랑의 소리였다.

그렇다. 말씀을 향해 일어난다는 것은 짧은 내 삶의 과거를 붙들고 그 안에 안주하는 모습은 아니다. 또한 하루하루 나와 타협을 통해 현재의 삶에 그저 만족하는 모습도 아니다. 설령 그 모습들이 내 능력의 한계이고, 지금 나의 처지로서는 합당한 입장이라 하여도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깊이 고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삶을 희망하는 자의 삶에 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창세 12,1-4), 자캐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올 때도(루카 19,1-10),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라자로에

게 큰소리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요한 11,38-44),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서도(요한 21,6)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기 위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과 고뇌의 모습이 보인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하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서 일어나자. 지금까지 입고 있던 나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생명이 충만한 부활의 옷을, 양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옷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고 일어나야겠다.

“일어나시오” 참 좋은 이름이다. 이 이름은 지금의 나에게도, 앞으로의 나에게도 꼭 맞는 이름인 것 같다. 아니 이름에 맞추어 그렇게 살기를 부활하기를 지내는 이때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 숲머리 생각



## 성 마르코(1세기)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마르코 복음의 사가(史家)인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녀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공헌을 한 여인으로 전해진다.

특히 초대교회는 박해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녀의 집을 집회장소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도12, 12참조)

마르코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 바르나바와는 또한 사촌(四寸)이 되는데, 그는 아마도 성 베드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으로 알려진다.

그는 성 바오로와 성 바르나바와 협력하면서 키프로스 섬으로 전교여행을 하는데, 나중에는 성 바르나바와 둘이서만 전교여행을 계속한다.

그는 후에 로마에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함께 머물기도 했다. 특별히 그는 성 베드로의 비서 겸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성 베드로는 마르코를 아들로 지칭 한다. (1베도 5,13) 그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한 죄수로 로마에 오게 된 성 바오로와 화해하기도 한다.

그는 아마도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틈틈이 자신의 마르코 복음서를 저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가 A.D.60년경 이전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그리스도인들로 회심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말로 썼다고 한다. 한편 그의 복음서는 성 베드로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복



음서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쓴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메시지를 기록하였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시작부분부터 예수께서 기적들과 놀라운 행적들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마귀를 몰아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죽은 이를 살리신다. 아

마도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 그분은 말씀하신다. '사람의 아들은 먼저 수난과 죽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가 마쳐지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창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삶으로 인하여 체포되고 고문을 받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시로 위로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전파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는데, 그의 마르코 복음서는 제자들의 제자됨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로도 본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뿐만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기를 바치는 희생을 본받는 것임을...'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높은 담장 안 그들의 창가에도 숲에 머물고 앉은 봄빛이 찾아들어 고통의 세월이 부활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한 달에 한번 가장 가까이 수용자들을 대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인 두 번째 금요일 우리 몇 분의 봉사자들은 정성으로 마련한 간식을 가지고 교도소로 향합니다.

40여 일간의 겨울방학을 지나 개강 미사가 2월에 시작하므로 아마도 새로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봄은 우리들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강당 옆 아담한 공간이 그날따라 딱 차게 느껴지는 것은 15명의 장정들이 우리들을 반기고 있어 떨림과 반가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1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각 분당 소공동체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함께하는 여정’의 책자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가 시작됩니다.

봉사자들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짧은 시간이 그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내면이 치유되기를 도와줍니다. 말씀 나누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불행했던 어린시절을 듣게 되고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굳은 얼굴과 굳은 마음을 열기 위해 재주 많은 자매님의 웃음치료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어 보았노라 하는 수용자들이 많습니

다. 한 해 끝자락에서 어떤 형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래 사연은 그 형제에게서 온 사연입니다.



김명숙(소화대레사)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달에 한번씩 갖는 여정의 시간은 참으로 의미가 큰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토론의 대화를 통해 나의 숨겨진 내면들을 드러내어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해 봄으로써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며 사람들과 하느님 앞에는 어떤 모습과 존재인가 하는 내 자신의 자아를 성찰해 보는 진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매님께서 행하시는 짧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웃음을 웃어도 정말 환하게 호탕하게 웃는 계기가 되었고 물론 숨어있는 나를 찾게 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진정으로 내가 나의 웃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 모세 드림 -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웃음을 찾고 조금씩 부드러운 눈빛과 희망을 가질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만남은 행복한 시간이며 그 발걸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했던 헛수만큼 주님을 알았으니 저들을 기쁨으로 춤추게 하소서.” 그림 | 황의성씨씨(자요한)

**입당송** 시편 66(65),1-2 참조

은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5,27ㄴ-32,40ㄴ-41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ㄴ(◎ 2ㄱㄴ)

◎ 주님,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가 주님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인류를 어여뵈 보셨도다. ◎

**복음** 요한 21,1-19(또는 21,1-14)

**영성체송**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도다. 알렐루야.

● **교구 설정 70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전주교구 설정 70주년을 기념하고 새교구청 축복식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지난 4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에 전동 성당에서 열렸다. 이병호 주교님을 비롯한 사제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들이 성당안을 꽉 메운 가운데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교구내 가톨릭합창단, 지휘자연합회, 성가대연합회, 체리티 챔버, 인보성체수도회 사크라멘티나 중창단, 삼천동 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성심여중 그린 나래합창단 등이 참여, 20여곡에 달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에 완벽에 가까운 화음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홍보국 정례

● **교구 설정 70주년 기념 희망 콘서트**

전주교구 청소년교육국(국장=김정현 신부) 제4회 희망 콘서트가 4월 14일(토) 오후 7시 전동성당에서 교구 설정 70주년 및 새 교구청 축복식 축하 음악회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희망 콘서트에서는 청소년 교육국 그룹사운드 '창세기'와 성령봉사회 소속 청년들로 구성된 그룹사운드인 '다니엘 선교단', 생활성가 가수 '포그' 등이 출연 생활성가 등으로 교구 설정 70주년과 새 교구청 축복식을 축하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영 기자

●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

성 바오로 딸 수도회 통신성서 교육원이 주관하는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이 4월 11일(수)부터 12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전주 중앙 성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노년기를 자신감있고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하는 어르신 성서의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날인 11일에 수도자, 통신성서 졸업생, 신학원 졸업생 신자등 60명이 봉사자 교육에 등록하여 당초 교육원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좋은 출발을 보였다. |신현숙 기자



전주교구 설정 70주년

전주교구는 자치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은 지난 4월 13일 새 교구청 광장에서 경축 기념미사와 새 교구청 축복식을 하고 21세기 새로운 복음화 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온 교구민의 일치된 마음을 뜻하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한 17,21)를 표어로 치러진 기념행사는 간간이 비가 뿌리는데 속에서도 일찍부터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줄을 이었고 자들은 기쁜 모습으로 새 교구청사를 돌아보았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로 봉헌된 경축 기념미사에는 정진석 추기경 주한 교황 대사 에밀 폴 체리 대주교, 주교회의의장 장영교와 주교단, 교구 사제단, 수도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구민들이 대거 참례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경축 기념미사, 제2부 축복식(축사, 프 커팅), 제 3부 나눔(터 밭기 및 기념식수, 나눔의 잔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병호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우리 교구 자치교구로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 오랜 숙원 사업인 교구 청사를 봉헌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구민들이 희생, 정성으로 이룩한 이 신앙의 요람에서 성장



**비새는집 100% 방수**

방수, 단열, ISO 9001 인증 기와, 스퀘트, 슬라브, 축사, 기타 신기술 방수, 단열 방음, 3중효과 삼부주택개발 김 원(토마스) 문의 : 010-8228-3424

**제127차 성지순례**

아젠티/아스라델/아틀리아/비타칸 출발 : 2007년 5월 25일~6월 4일(10박 11일) 매일 미사 드립니다.

**전 일 관 광**

조 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 / 씽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 (가브리엘)

☎ 063)275-9236~7 011-294-6471

**장문외과**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치질·변비·유방클리닉 전문의 최 성 영(루가)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 ☎(063)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밑

**젼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리피델), 이정미(글라라) - 밤9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동동 제일차 APT앞)



# 미사 및 교구청 축복식

도자, 평신도가 하나 되어 하느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 감당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현 예절에서는 그동안 17만 교구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쁜 가톨릭 센터 신축기도문을 대형 액자로 만들어 봉헌하였다. 정진석 추기경은 축하 인사에서 "전주교구는 첫 자치 교구이자 모범 교구로서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기초가 되었으며" 치명자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땅에 교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교구청을 지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치하하였다.

한편 새 교구청사 내에서는 교구 계간지 '쌍백향'과 전주교구 비디오 저널리스트모임(C.V.J)주관으로 교구의 지난 70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모은 역사사진전, 영상전이 열려 신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 교구청은 1만 2,000평 부지에 행정청사(1600평)와 사제관(1800평) 2개 동이 들어서 있다. 현 교구청이 새 교구청사로 이전하면 가톨릭센터는 청소년 교육을 비롯해 교구 평신도들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현숙 기자



## ● 포콜라레 호남지역 하루 마리아폴리

'포콜라레 호남지역 하루 마리아폴리(전주교구 지도=이사정 신부)'가 지난 4월 14일(토)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렸다. 이병호 주교를 비롯 전주, 익산, 군산, 광주 등 전라도 각 지역에서 온 약 4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와 일치'라는 주제로 포콜라레 운동 소개 및 경험담 나눔, 담화, 그룹나눔, 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손희정 기자

## ●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4월 15일(주일) 군산대 실내 체육관에서 전주교구 장애인 복지 협의회(회장=임한복)는 전주 익산 군산 7개 지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12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하나회 지도신부 양석현(요한)신부의 집전으로 미사을 봉헌하고 미사 후 군산 미룡동성당의 봉사자들과 군산지구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야외에서 지구별로 모여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휠체어와 2인 2각으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를 시작으로, 좌식배구, 풍선 기둥 만들기, 풍선나르기, 풍선기둥 터트리기, 공룡알 나르기, 줄다리기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영수 기자

## ● 금암동 성당 어른신 성서공부반 개강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본당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한 어른신 성서공부반을 지난 12일(목)일 개강했다. 원장주녀(안그레고리아)의 지도 아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공부하게 될 이번 어른신 성서공부반은 '새로 나는 성서공부(구약)'를 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가수도 기자

## ● 오룡동 성당 사회사목 특강

오룡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은 지난 14일(토) 하느님 자비 주일을 맞아 장상원 신부의 "까리마스 사랑 활동과 본당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사회사목 특강을 실시했다. |길용운 기자

###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 호성냉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캐텐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요왕) · 김경남(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 김치 주문 판매합니다

모든행사 피로연이나 가정용  
10kg - 25,000원  
문의 : 011-678-2004  
진안 밀알식품(김 가타리나)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4월 29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광주 가톨릭센터 614호  
문의: 011-9319-1690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학종로약국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중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 AIG 생명보험

민고 신뢰하시면  
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  
이완기(빈첸시오)  
☎ 상담 : 019-9770-2468  
212-9339

###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오)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5월 5일(토) 16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  
주제: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문의: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고등학생 이상



교구장 일정

- 유장훈 몬시뇰 서임 축하미사  
4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중앙
- 사목방문  
4월 26일(목) 오전 10시 용머리
- 성소주일 행사  
4월 29일(주일) 성심학교

미사·행사·모임

-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4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새 사제 연수  
4월 26일(목) 오전 10시 센터
- 제44차 성소주일 행사  
4월 29일(주일) 오전 10시~5시  
주제 :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요한 10,28)  
장소 : 성심여고 강당  
대상 : 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고, 대학생·일반  
준비물 : 점심 도시락, 미사도구  
문의 : 285-0041(성소국)
- 초동부 성소주일 행사  
4월 29일(주일) 오전 10시~3시  
주제 : 기쁨에 넘치리라.  
장소 : 인보성체수도회 본원  
준비물 : 도시락  
문의 : 010-5260-6262, 232-4340

- 세계 순례 파티마 성모님 전주방문  
5월 3일(목) 환영미사 :  
하안토니오 몬시뇰  
(푸른군대 본부장 미사 예정)  
5월 5일(토) 파견미사 :  
법선배 신부(라우렌시오)  
김환철 신부(스테파노)

교육·피정·연수

- 본당 평신도 지도자 2단계 교육  
교육일정 : 전주, 김정고부, 임순남무진장지구  
4/24, 5/1, 8(매주 화) 오후 7시~9시 삼천동 군산지구  
4/25, 5/2, 9(매주 수) 오후 7시~9시 나운동 익산 남·북 지구  
4/27, 5/4, 11(매주 금) 오후 7시~9시 아양동  
참가대상 : 본당 사목위원 및 제단체 간부  
참가비 : 1인당 12,000원  
(교재 및 간식제공, 매 2시간 4회교육)  
준비물 : 필기도구  
FAX : 285-0049

- 청년성서 그룹봉사자 피정 및 교육  
4월 28일(토)~29일(주일) 해월리
- 레지오 단원 교육  
4월 23일(월) 중앙
- 혼인강좌  
4월 29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 강좌(2차)  
주제 : '나'를 찾아서  
대상 : 자기이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사 : 김정민 신부(가정사목)  
일시 : 5월 15일, 22일, 29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센타 / 마감 : 5월 10일(목)  
교육비 : 30,000원  
접수 및 문의 : 가정사목부 285-0041

쌍백합에 100,000원 후원해 주신  
장성수(마태오)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과 봄의 향기가 가득히 밀려오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 4월 13일의 전주교구 설정 70주년과 새 교구청사 축복식에 오시어 함께 해주시거나 가득 찬 후의, 격려, 기도를 보내 주시어 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인사드리면서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4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협의회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4/8~14)

장용근(시몬)	10,000,000	청주교구청	1,000,000
부산 올리베타노 수녀원	1,000,000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	5,000,000
익산 성모병원	1,000,000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	1,000,000
70주년기념미사 및 교구청 축복식 봉헌금	21,100,900	서울 대주교	5,000,000
익산 성모병원장 유희순(빈센시오)sr.	1,000,000	해성고	200,000
고산 최운필(예로니모)	2,000,000	해성중	200,000
안동교구 평신도협의회장 강희용(마티아)	100,000	성심여고	200,000
국민은행 전주지점장 조영기	100,000	성심여중	200,000
강만춘(토마스모어), 최희숙(가타리나) 부부	10,000,000	한국여성연합회	200,000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직원	1,000,000	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	200,000
춘천교구청	1,000,000	숲정회장 이수홍(스테파노)	300,000
		(주)대화원료펌프	1,000,000

4월 좋은 영화 - 신부님신부님우리신부님

이탈리아 시골마을에 사는 돈 까밀로 신부님과 음악 빼빼네. 이 두 사람과 마을사람들이 엮어내는 끊임없는 갈등과 사건들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명랑 영화.

- 일시 : 4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3층 강당
- 상영시간 : 126분

선한목자에수수녀회

일시 : 4월 29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 주일)  
장소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본원  
문의 : 02-919-2754  
비고 : 성소상담 언제든지 가능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 5월 19일(토) 오전 11시~20일(일) 오후 4시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앙당  
대상 : 1)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2)가정분화로 고통받는 부부·부모자식·교부간  
3)내적·외적·영적치유를 원하는 분  
회비 : 일만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 011-490-5345

씨든 영성의 집

제목 :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미술을 통한 부부의 만남)  
일시 : 5월 5일(토), 오후 3시~6일(일) 점심  
문의 : 시튼영성의 집 041-733-2992~4  
www.setoncenter.or.kr

군산해성유치원 부모교육(PET)실시

일시 : 4월 19일(목)~6월 14일(목)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8주간)  
장소 : 해성유치원 다도방  
참가비 : 책값포함(202,000원)  
해성유치원학부모 152,000원  
신청및 문의 : 4월 18일까지 016-639-8445

#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명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사목회장: 김기창

- ◎ 금주 구역성경 쓰기: 잠언 1장~6장 1-15절
- ◎ 놀이터쪽 경사진 화단에 꽃잔디를 심어주세요!
- 1. 오늘 ① 성바오로딸 문서선교(교중미사 후) 서적, 카세트테이프, CD 전시 판매 - 영적성장을 위해 신심서적을 읽읍시다!  
② 전례분과모임
- 2. 금주 ① 사무장 방화관리자교육 24일(화)~27일(금)  
② 12사도회 모임 25일(수) 후 6:30  
③ 병자봉성체: 공소 25일(수) / 본당 26일(목)  
④ 애령회 모임 27일(금) 후 8시
- 3. 감사헌금: 익명 20만, 윤화자 10만
- 4. 신축헌금: 소지현 8만
- 5. 차주 ① 성소주일(주일학교 신학교 방문)  
② 대건회 성지순례(치명자산) 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034,900원 ■ 교무금: 1,030,000원

##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김원태

- ◎ 성서읽기: 4월 넷째주간-집회서1장~7장
- ◎ 금주공소미사: 무풍공소
- ◎ 초등부주일학교 봄소풍: 4월28일(토) 10시 - 구천동
- ◎ 성당청소: 4월28일(토) - 한수리, 상록반
- 1. 모임: 애령회 - 4월27일(금) 10시 미사 후
- 2. 금주전례: 해설-김영애, 독서-이기재 부부  
봉헌-김동숙, 김순옥, 기도-변상옥 부부
- 3. 차주전례: 해설-서정분, 독서-장춘호 부부  
봉헌-주순이, 김존임, 기도-김희석, 김은경  
■ 지난주 봉헌금: 706,000원 ■ 교무금: 645,000원

##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호석  
유지원: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정운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봉성체-26일(목)10시부러
- ◎ 첫영성체 교리 5월1일(화)부터 시작 합니다.
- 1. 금주모임: 꾸리아-미사 후
- 2. 차주모임: 구역장모임-2일(수)미사 후, 제대회-4일(금)미사 후
- 3. 청소: 금주-착한 의견의 어머니, 차주-가정의 모후
- 4. 차량봉사: 오용호 정준일, 차주-이우철 김호  
■ 지난주 봉헌금: 1,014,200원 ■ 교무금: 1,070,000원

##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gyo.org>

- ◎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 16)
- 1. 첫영성체: 6월 10일(일), 기간 - 5월 8일~6월 8일, 후 4시~6시  
※ 초등 3학년 이상 신청비 - 20,000원, 4월 29일까지 신청
- 2. 유아세례: 26일(목) 저녁미사 중 -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3. 훈장제 나눔 잔치 9일기도: 25일(수)부터 - 많은 기도바랍니다.
- 4. 나눔의 잔치에 쓸 썩 채취: 29일(일) 교중미사 후, 많은 동참바랍니다.
- 5. 다음주일(29일)은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6.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659,970단
- 7. 센터 신축헌금 신입액: 159,724,000원, 납입액-129,388,000원
- 8. 감사헌금: 김아네스 - 3만  
■ 지난주 봉헌금: 1,900,500원 ■ 교무금: 1,300,000원

##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진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사목회장: 구동수  
연락처: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첫영성체 교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 5월(성모성월)부터 어른동 성체모심 - 월 2회 미사 있습니다.
- 1. 금주 ① 22일(일) 미사 후 대건회  
② 23일(월) 성당방염공사  
③ 24일(화) 전10시 성모회, 병자영성체  
④ 26일(목) 전 선인동, 후 두원 공소 미사, 본당미사 없음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사목회장: 변홍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201,15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 통독 합시다.
4. 부활절 행사에 도와주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금주전례: 해설 - 전미숙, 독서 - 황일주, 신광일
6. 차량봉사: 김진태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 차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김진태, 박춘향
8. 차량봉사: 변홍섭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종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노재진

1. 공소미사: 신전 - 오늘 후, 7시
2. 감사헌금: 최종일(토마)-5만원
3.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한덕원(요한)-15만원, 김소애(마리아)-5만원, 익명 -10만원 ※ 누계: 64,584,131원
4. 차주전례(29일) ① 해설 - 심금자 ② 독서 - 노재진 부부  
③ 봉헌 - 전막동 부부
5. 모임 ① 구역장회의 - 오늘 미사 후(분도관)  
② 구역모임: 27일(금) - 성수
6.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덕치, 가리점 ② 27일(금)-임실1,3  
③ 29일(일)-성수  
■ 지난주 봉헌금: 714,500원 ■ 교무금: 404,000원  
■ 선교사 돕기 2차헌금: 196,000원

##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기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이상화

- ◎ 오늘은 쌍안신사 초대주일입니다.
- 1. 우리장계본당 가정은 '성구가훈, 올만듭니다  
※ 성구가훈 응모기간 연기 ① 기간: 5월6일까지  
② 전전화: 5월6-5월31일 ③ 시상식: 주님승천 대축일 5월20일
- 2. 미사시간 변경: 화, 목, 토, 특전 저녁 8시
- 3. 사순절 돼지 저금통: 미사 때 봉헌합니다.
- 4. 가정방문: 25일(수) 오후2시(내동구역)
- 5. 환자방문: 26일(목)오전10시
- 6. 감사헌금: 최언님 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723,300원 ■ 교무금: 400,000원

##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장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 서신동 성당 바오로회 의료봉사활동  
※ 일시: 오늘 교중미사후 - 후5시까지  
※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순절 저금통 - 사무실에 접수
- 1. 금주참여공소: 모든공소
- 2. 금주모임: 요셉 청년회 27일(금) 후 8시 - 많은 참석바랍니다.
- 3. 금주전례: 이윤희, 차주-김호준
- 4. 금주독서: 이범수, 김복순, 차주-박동표, 강순이
- 5. 금주봉헌: 장재주, 최임주, 차주-박창기, 이선미
- 6. 차량봉사: 금주-정용석, 차주-이지수  
■ 지난주 봉헌금: 531,580원 ■ 교무금: 180,000원

2. 차주: 29일(성소주일), 2차헌금, 미사후 꾸리아, 첫영성체 자모모임
3. 감사헌금: 이바울라, 익명  
■ 지난주 봉헌금: 937,000원 ■ 교무금: 1,075,000원

##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4월 14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오수, 오룡동, 원평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이동, 팔복, 용안, 신태인, 순창, 고산, 나운동, 서학동, 월명동, 우림, 숲정이, 신동, 여산, 무주, 서신동, 월명동, 영등동, 조촌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인후동, 소룡동, 봉동, 덕진, 금마, 복자, 우전, 시기동, 팔마, 솔내, 함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송천동, 삼천동, 연지동, 미룡동, 용진, 화산동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납 부 액	비 율
본 당	15,000,000	10,845,274	72.30%
사 제 단	1,000,000	1,294,154	129.42%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760,642	50.71%
수 익 사 업	500,000	232,824	46.56%
합 계	18,000,000	13,132,894	72.96%

## ▶ 문화의 향기

### 나를 웃게하는 당신 (성공하는 결혼이야기)

안미경,김재훈,신성용 / 김옥순 / 바오로딸 / 10,000원



오늘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돌아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루는 비법이 담긴 이 책은 성격 차이, 자녀나 경제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이 급증하고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

어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유로운 가치관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미혼자들도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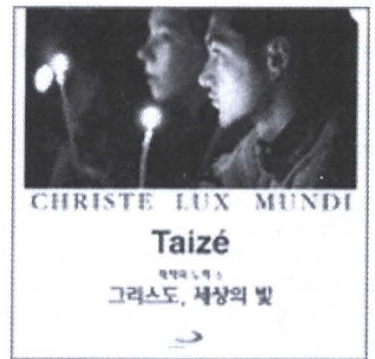
참조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피정안내

4월 26일(금) 정동프란치스코회관

문의 : 02-944-0800(성 바오로딸 수도회)

### 떼제의 노래6-그리스도, 세상의 빛 CD

CHRISTE LUX MUNDI / 성바오로 / 12,000원



하느님과 교감하는 내적 삶을 되찾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삶의 도전에 대한 회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

니다. 찬미, 묵상, 침묵 안에서 하느님의 기다림에 대한 이 노래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변화의 힘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는 이들의 강한 영적 원천이 될 것입니다.